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는다

'제2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 6곳서 개최... 이벤트·경품 행사·플리마켓 등 다채롭게 진행

전주시는 침체된 골목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혁신도시 상점가 등 골목상권 6곳에서 '제2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다시 도약하는 골목상권'이라는 꿈을 주제로 진행되며,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붕괴 우려에 놓인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이고, 각 지역 골목협의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주민, 지역공동체, 문화예술인 등이 기획한 소비촉진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주지역 6개 골목상권에서는 영수증 이벤트 및 경품 행사, 축제 구

역 내 상가 및 주민 참여 플리마켓, 신제품·인기품목 세일행사, 공공기관 협약을 통한 상가 사용 쿠폰 증정 등 해당 상권 내 상가 이용 촉진 및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특색있게 운영된다. 또, 빈 점포를 활용한 공구클래스와 아트 클래스 등도 마련돼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번 골목상권 드림축제는 오는 1일 혁신도시 시계탑 상가에서 개막식 및 트리 점등식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개막식에는 4050세대의 감성을 자극하고 MZ세대에는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해줄 '자전거탄풍경'과 지역예술인의 레트로 감성 콘서트도 펼쳐져 따뜻한 연말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어 평화동 새터공원 일원(3일)과 혁신동 대방더오피스 상가(3일), 공구

거리(9일), 혁신동 기지제(10일), 객리 단길 상권(10일), 송천2동 두간로 일대 상권(17일)에서 각각의 상권별 특색과 주요 타깃층에 맞는 다양색소비촉진 행사와 문화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이 릴레이로 이어진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9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상점가 9개소 등 총 18곳에서 약 두 달간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개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장은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고 활력을 되찾는 데 이번 축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지쳐있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위로와 화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제2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 포스터



전주팔경의 하나인 기린토월 등 전주시 노송동의 유·무형 자산과 전주시민들의 생활사가 담긴 디지털 콘텐츠가 개발됐다.

노송동 자산, 3D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

전주 원도심 인문자원 발굴·연구 통한 콘텐츠 구축 성과공유회

전주팔경의 하나인 기린토월 등 전주시 노송동의 유·무형 자산과 전주시민들의 생활사가 담긴 디지털 콘텐츠가 개발됐다.

전주시와 문화통신사업협조조합, 원광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 28일 공간 기린토월에서 '전주 원도심 인문자원 발굴 및 연구를 통한 3D 게임형 콘텐츠 구축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지역 인문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된 3개 기간은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노송동 일대를 3D 콘텐츠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사업 총괄은 문화통신사가 맡았고, 마을에 대한 인문 자원과 생활사 연구는 원광대 박사진이 참여했다. 연구보고서는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에 게재됐다.

시는 노송동 주민과 개발에 참여한 예술인 등이 참석한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그간 진행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고, 최종 결과물인 노송동 3D 콘텐츠를 시연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개발된 콘텐츠는 남노송동의 유무형 자원인 기린봉과 친일과 이두환 묘, 저항시인 신석정의 가족 비사별초사, 그리고 남노송동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주민과 함께 마을 탐방을 진행, 이를 토대로 전북지역 예술인 6인이 마을의 인문자원을 시와 그림, 음악, 시뮬레이션, 마을 인형극 등과같이 예술적으로 재구성해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냈다.

특히 개발된 디지털 콘텐츠는 시민과 관광객이 보다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노송동의 지형적 특징이 실제와 유사한 실감형으로 제작됐다.

개발된 콘텐츠를 이용하면 기린캐릭터가 비사별초사 디지털 정원을 산책하면서 신석정의 시를 읽고 이두환과 관련된 3D 공간에서 역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권인숙 전주시 평생학습관장은 "이 사업은 디지털과 인문학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인문학의 확장을 꾀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개발된 디지털 인문콘텐츠는 보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게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디지털 기술 활용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조성 논의

전주시·LX,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컨퍼런스' 12월 7일 개최

전주시,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들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생활을 IT기술로 혁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시와 LX는 오는 12월 7일 전주 라한 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전주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시는 컨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공간 속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시티 트렌드를

공유하고,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공간 속 쌍둥이'라는 뜻을 지닌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과 똑같은 사물을 디지털로 구현해 건축 인허가·재난재해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도시문제의 해결을 돕는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IT기술이다.

'디지털트윈(DX) 시대,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인프라의 케넥션'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추진방향', 전주시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LX의 '디지털

트윈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공간 정보 추진전략' 등 공공분야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민간분야 주제는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주)그레타, 포티투닷(주), (주)텔로스, (주)테라리스시스템'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보유한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인프라 연계 서비스 솔루션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에 선정돼 내년 상반기까지 전주 구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장 부족과 정보검색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도심 11개 주차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주차관

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과 객리단길 등 구도심 일대의 주차 여건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도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주시는 내다보고 있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영국, 중국, 일본, 스페인 등 전 세계 도시가 시민 삶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도시공간에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신산업 분야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세대 간 소통 '리버스 멘토링' 진행

세대 간 원활한 소통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수평적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리버스 멘토링'을 실시했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덕진소방서 9명의 멘토단과 함께 임용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20·30대 MZ세대들과 소통을 위해 29일 '리버스 멘토링(특별한 만남)'을 진행했다.

'리버스 멘토링'이란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기존 멘토링 방식에서 벗어나 후배가 멘토가 되는 방식으로, 역할을 바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을 통해 신규 직원들의 달라진 조직문화 인식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멘토링이다.

이날 '리버스 멘토링' 만남에서는 멘토가 된 후배 직원이 MZ세대의 최신 트렌드, 밈 및 신조어, 소통 팁 등을 공유해 전달하고, 조직개선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특히, 전주덕진소방서장과 멘토단이 함께한 '플로깅'을 통해 세대 간 벽을 허물며 더욱 솔직한 대담으로 이어졌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어렵다 화재지말고 함께하는 소방점검

전주완산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소방점검에 취약한 어르신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어렵다, 화재지말고 함께하는 소방점검' 컨설팅을 29일 실시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의 이번 시책의 추진 배경은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전문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 비율이 67%에 달하고 있어, 소방시설 점검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검 능력

을 배양하고 민·관 협력 소방점검 능력 강화로 상시적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소방시설점검에 취약한 선정된 대상을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 건물 현황 및 운영으로 사항을 청취하고, 소방점검 실무 방법 안내, 화재예방 교육 등 안전 컨설팅,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안내, 작동기능점검 관련해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소통·협력으로 지역 발전 이끈다

우범기 시장-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상호 협력 다짐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범기 시장과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9일 전주시청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으로 전주시 발전을 이끌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이날 식사 자리는 최근 시의회 도시

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빚어진 갈등을 봉합하는 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전 위원장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과 시의원들이 갈등을 일으켜서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자료: 질병관리청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